

‘좋은 날씨’ 기준 더 엄격해졌다

최근, 생태환경부와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은 <환경대기질기준> (GB3095-2026) 과 두가지 배합기술 규범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앞으로 ‘좋은 날씨’를 판단하는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대중 건강을 더욱 잘 보장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은 미립자 및 주요 전구체의 농도 제한을 강화하고 PM2.5의 년간 평균 농도 1급 기준을 10 μg/m³로, 2급 기준을 25 μg/m³로 조정했다. 1급 일평균 농도 기준은 25 μg/m³, 2급은 50 μg/m³로 조정했으며 PM10, 이산화황(SO₂), 이

산화질소(NOx) 등 3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 기준을 동시에 강화했다.

새로운 기준은 단계적 실시 방식을 채택한다.

첫번째 단계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과도 단계의 농도 기준이 적용된다. PM2.5년평균 및 일평균 농도 2단계 기준은 각각 30 μg/m³와 60 μg/m³이다.

두번째 단계인 2031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개정된 PM2.5, PM10, SO₂, NOx의 농도 기준이 전면 시행된다.

/인민넷-조문판

1남 4녀 5동이 무사히 출산!

산모 컨디션 좋고 아기들 상태 안정적

“근심이 끝내 해결되었어요.”

2월 26일, 갓 엄마가 된 신강 출신의 24살 딜리(迪丽)가 병실을 순시하는 무한대학중남병원 산부인과 부주임 의사 서단에게 감탄하며 이렇게 털어놓았다.

이날 새벽, 20여명 의료진의 지속적인 치료 끝에 끝내는 무한에서 보기 드문 5둥이를 출산했는데 산모와 아이들 모두 무사했다.

“이제 제가 임신부터 분만까지 맡은 다태 임신중 가장 많은 수의 다둥이입니다.”



의료진이 딜리를 회전하는 장면

중남병원 산부인과에 40년 가까이 몸담아온 주임 의사 리가복이 전했다. 의학 데이터에 따르면 자연임신으로 5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6천만분의 1로 생명의 극적인 기적이나 다름없다.

다낭성란소증후군을 앓고 있는 딜리는 임신이 어려운 데다 자연유산 위험도 매우 높았다. 현지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지난해 8월 자연임신에 성공해 가족 모두 행복에 젖어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받은 산전 검사에서 또 다른 ‘행복한 고민’이 생겼다. 의사는 그녀가 한번에 다태아를 임신했으며 이러한 임신은 고위험 임신으로 산모와 태아의 합병증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말했다.

“집에 돌아온 후 인터넷으로 다태아 관련 정보를 찾아봤는데 제 경우 산후 대량 출혈 같은 변수가 생기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어요.”

딜리는 당시를 회억하며 그 기간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경향이 풍부한 의사와 병원을 여기저기 찾아 다녔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4둥이 엄마의 추천으로 딜리와 남편은 고향에서 수천키로미터 떨어진 중남병원에 산부인과 치료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알게 됐다. 부부는 온라인 진료를 통해 병원 산부인과 리가복 주임의사와 첫 ‘만남’을 가졌다.

“5둥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기에 진

지나해말, 딜리는 남편의 동행하에 무한에 도착했다. 리가복팀은 즉시 산전 진단을 진행했다. 결과 태아는 발육이 양호하고 딜리의 신체 상태도 안정적이며 기초질병이나 임신합병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병원은 산과, 신생아과, 마취과, 수술실, 산전진단중심, 산부인과, 초음파의학과 등 여러 분야의 전문의로 구성된 ‘보호팀’을 설립하여 신강으로 돌아간 딜리에게 실시간 온라인 의료상담과 임신중 모니터링을 제공했다.

올해 설명절전,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딜리는 다시 무한을 찾았다.

종합건강검진후 리가복은 다학제팀을 이끌고 회의를 열어 완벽한 치료계획을 세우고 수술 리허설까지 마쳤다.

2월 25일 23시 30분경, 임신 28주 6일째인 딜리에게 태반 조기 파열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은 즉시 응급 제왕절개수술 계획을 가동, 15분 만에 산과, 신생아과, 마취과, 수술실 등 관련 의료진 20여명이 모두 집결했다. 26일 2시경, 수술이 시작됐다. 마취과 의사는 정밀 마취를 시행하고 수술 내내 산모와 태아의 생체 신호를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마침내 5명의 아기가 무사히 출생했다.

다섯아이의 체중은 각기 첫째(남) 990그램, 둘째 1,020그램, 셋째 970그램, 넷째 1,030그램, 다섯째 870그램이었다. 분만과 동시에 대가중이던 신생아과 의료진은 차례로 신생아에 대한 평가와 검사를 진행한 후 아기들을 미리 준비해둔 온도조절기 안으로 옮기고 전문 간호사가 신생아 집중감시실로 호송했다.

중남병원 소아과 부주임 의사 양박은 “운이 좋게도 다섯아이 모두 평균 6점 이상으로 극소 체중으로 태어난 극소 조산 아이들중 매우 드문 경우이며 생명체 징후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미숙아인 만큼 앞으로 호흡, 감염, 영양 등 여러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병원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부주임 의사 서단은 “딜리의 산후 대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은 자궁수축유도제를 사용하고 자가 수혈(自体血回輸)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모두의 노력으로 이 과정은 약 1시간 동안 계속되며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현재 딜리는 이미 일반병실로 옮겨 컨디션 회복중이며 5둥이는 신생아과에서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는 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인민일보

“작은 힘이지만 환자에게 도움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연변병원 간호사 리도, 희귀혈액 무상 기증으로 환자 생명 지켜내



환자의 가족들이 간호사 리도에게 감사기를 전하고 의료진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다.

최근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 혈액내과 병실에서는 혈액을 넘나드는 사랑의 릴레이가 펼쳐졌다. 이 온기는 병마에 시달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순박한 선정을 ‘연변 의료’ 의료진들의 책임과 담담을 보여줬다. 이 같은 사랑의 릴레이를 시작한 이는 바로 내과(혈액내과, 면역학과) 제4간호팀의 젊은 남성 간호사 리도(李涛)이다.

리도는 입사한 지 6개월 남짓 되는 새내기 간호사이다. 평소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 리도는 자신이 담당하는 한 로인 환자가 희귀혈액형 피를 급히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자신의 혈액형이 마침 이와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도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휴식시간에 헌혈소를 찾아 무상헌혈하여 어려움에 처한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고 실제 행동으로 의료진의 초심을 실천했다.

공산당원인 리도는 평소 말수가 적고 과묵한 편이지만 착실하고 믿음직스러우며 인내심과 세심함을 갖고 모든 환자를 책임감 있게 대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간호 기술로 환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고 있다.

그는 림상에서 희귀혈액형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고 비축량이 제한적이며 폐지의 혈액은 환자의 치료 시기와 관계되고 한 가정의 기대를 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 환자는 전혈구감소증을 앓고 있어 정기적인 수혈 유지 치료가 필요하지만 혈액형이 희귀해 수혈을 기다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리도는 2월 13일 자진하여 헌혈소를 찾아 헌혈하였으며 주변 동료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전 과정을 조용하고 소박하게 마무리했다. 오직 자신의 자그마한 힘으로 병마에 시달리는 로

인에게 생기와 따스함을 더해주기 위함뿐이었다.

혈액중심의 신속한 검측과 배치를 거쳐 2월 15일, 사랑과 희망을 담은 이 소중한 혈액이 제때에 환자 몸속에 수혈되었으나. 한방울도 한방울의 신선한 피가 천천히 흘러들어가면서 로인에게 생명의 원동력을 주입한 것은 물론 그의 병세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켰다. 이 뜻밖의 온기에 깊은 감동을 받은 환자와 그 가족은 특별히 감사기를 전하며 리도에게 진심어린 고마움을 표했다.

환자와 가족들은 “입원치료 기간 동안 주임 김성우, 주치의사 최문호의 세심한 진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간호팀의 세심하고 꼼꼼한 돌봄도 함께 느꼈다. 특히 리도간호사의 자진 무상헌혈이라는 사심없는 행동은 예상외로 소중한 것으로 이처럼 희귀하고 소중한 ‘생명의 선물’은 병마와 싸우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족에 커다란 위안과 힘을 주었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신심과 용기를 더욱 굳건히 해주었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감사기와 진심어린 고마움 앞에서 리도는 매우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무상헌혈은 단지 저의 능력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에 불과합니다. 저의 혈액으로 필요한 환자를 돕고 이로부터 사랑이 전파되고 이어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그는 계속하여 일터를 지키고 실제 행동으로 공산당원의 초심을 실천하며 의료인의 책임과 담담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따뜻한 다리를 놓아준 리도의 무상헌혈 선행은 병원 전체 의료인들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리전기자

자원봉사자 리연생, 뉘옹정신 실천으로 지역사회 귀감 되다



북경 관광객이 잃어버린 핸드폰을 되찾아준 리연생

연길시 북산가두 단촌사회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리연생(58세)은 부대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여 세대후에도 초심을 잊지 않고 뉘옹정신을 학습, 실천하면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음력설 연휴를 앞두고 연길시역은 고향을 찾는 학생들과 귀성객 그리고 연길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눈에 띄는 붉은 조끼 차림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도시를 더욱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속에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려객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돕고 있는 리연생도 있었다.

연길시자원봉사자련합회 회원이며 단촌사회구역 길행군자원봉사협회 회장인 리연생은 려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세심하고 계획적이며 책임감 있는 봉사로 음력설 려객

운수에 조력하며 도시의 온정이 려객속에 스며들게 했다.

음력설 려객 류동 고향에 대비한 자원봉사의 정확하고 질서 있는 배치는 려객의 원활한 출행을 담보하는 관건이다. 자원봉사의 선두자로서 리연생은 솔선수범하여 봉사 현장의 총괄과 업무 분담을 도맡았다. 특히 역내 중점구역과 봉사 수요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역을 나누고 매 순간마다 려객들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애썼다.

왕흥도시인 연길로 려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리연생은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아침 일찍 연길시역에 도착해서는 밤 늦게 마지막 고속 려차가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는 항상 앞장서서 매표소와 출입구 등 주요 구역을 묵묵히 지키면서 음력설 려객운수 봉사 보호선을 튼튼히 다



붉은 조끼를 입은 리연생이 관광객의 짐을 택시에 실어주고 있다.

지는 한편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봉사에 임하도록 이끌었다. 덕분에 자원봉사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고속철도역에는 언제나 함께하는 따뜻한 풍경이 펼쳐졌다.

음력설날, 북경에서 온 한 관광객은 부주의로 휴대폰을 분실한 채 초조해하고 있었다. 리연생은 이 사실을 알고 즉시 달려가 관광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곧바로 분실물 찾기에 나섰다. 높은 책임감과 신속한 행동으로 불과 1시간 만에 휴대폰을 찾아내 손상 없이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휴대폰을 되찾은 북경 관광객은 거듭 감사를 표하며 “휴대폰은 비싸지만 중요한 정보가 많이 담겨져있어요. 연길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리연생은 남의 곤난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는다. 그는 책임감과 사랑으

로 인정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헌신과 성실함으로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을 몸소 보여주었다. 명절 때마다 그는 려사가족, 로당원, 장애인, 독거로인들을 찾아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는데 그 금액이 루적 2만여 원에 달한다.

이번 음력설 려객운수 기간 리연생은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초심을 실천했다. 그의 묵묵한 헌신은 추위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봉사의 붉은 빛’을 그려냈으며 자원봉사자가 지닌 책임과 따뜻한 마음으로 연길이라는 도시가 품은 따뜻한 정을 생생히 드러냈다. 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오로지 ‘남을 위해’ 살아가는 든든한 위계기러기 손색이 없다.

/리성복특약기자

